

금융위기 이후 재미한인 경제와 한인은행의 역할: 캘리포니아지역을 중심으로*

Korean-American Economy and Ethnic Bank after Global Financial Crisis : Focusing on
California State

장선미(Chang, Sun Mi)

원광대학교 국제통상학부 부교수
(smchang@wku.ac.kr)

목 차

- | | |
|-------------------------------------|----------|
| I. 서론 | V. 결론 |
| II. 미국내 한인경제의 변화 | 참고문헌 |
| III. 한인은행의 경영현황 | ABSTRACT |
| IV. 한인은행의 한인경제에서의 역할 및 문제점과
해결방안 | |

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금융위기를 전후하여 미국내 한인의 집거지역인 캘리포니아지역 한인경제의 변화와 한인은행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미통계청의 Census자료를 이용해 한인경제에 대해 분석하고,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의 자료를 이용해 LA지역 한인은행의 현황(자산, 고용, 예금, 부채 등)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리고 한인은행 관계자와의 심층인터뷰를 통해 이들 금융기관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통계자료로 살펴본 결과 재미한인들의 미국내 경제적 위상은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융위기를 전후하여 도태되지 않은 한인금융기관은 미국내 주류은행들에 뒤지지 않는 규모의 은행으로 양적 팽창을 해왔음을 볼 수 있으며, 은행들의 체질도 상당부분 개선되고 있다. 또한 은행들의 경영성과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금융위기, 재미한인, 한인경제, 은행업, 캘리포니아

* 이 논문은 2014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4S1A2A1A01025408)

I. 서론

2010년 기준 재미 한인의 수는 146만 여명으로 아시아계 중 중국, 인도, 필리핀, 베트남에 이어 다섯 번째로 많으며, 이는 2000년(110만 명)에 비해 약 33% 정도 증가 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¹⁾. 미국에 사는 한인의 수가 늘어감에 따라 한인사회의 경제 규모도 커지고, 그에 따른 금융을 지원하기 위한 한인은행들도 많아졌다.

2008년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미국내 금융시장에는 많은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미 재무부를 비롯한 연방준비은행(FRB), 미연방예금보험공사(FDIC)등 금융당국은 엄청난 규모의 구제금융 지원을 하였으며, 이에 거대복합금융기관 내지 메가 뱅크, 상업은행 그룹은 다양한 형태의 구조조정을 통해 금융위기의 극복과 회생전략을 추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금융위기를 전후하여 미국내 한인의 집거지역인 캘리포니아지역을 중심으로 한인경제의 변화와 한인금융기관-은행-에 대한 연구를 하고자 한다. 미국내 아시아 이민자들의 뛰어난 경제적 성과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경제적 성취의 근원에는 자본의 원활한 순환이 지적되고 있다. 즉 같은 소수민족이라고 하더라도 흑인, 라틴계와 달리 아시아 이민들이 비교적 빠른 시일내에 경제적으로 정착하게 된 배경에는 소수계 민족은행이 배후에 있었다는 것이다(안현효, 2010; Light and Gold, 2000).

2014년 기준 캘리포니아 지역에는 10개의 한인 및 한국진출 은행이 한인과 현지인을 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²⁾³⁾. 최초 한인은행은 지금은 한미은행으로 흡수된 퍼시픽유니온은행(Pacific Union Bank)의 전신인 가주외환은행으로 1974년 9월 한국의 외환은행이 전액 투자하여 설립되었다. 1989년에 설립된 나라은행은 2011년 중앙은행과 합병하여 현재 BBCN은행으로 영업 중이며, 한인은행 중 규모가 가장 크다⁴⁾.

재미 한인은 수적으로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특히 경제적, 정치적인 측면에 중요도가 크며, 이에 재외한인 경제네트워크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집단이다. 미국이라는 국가의 위상도 있지만 실제로 다수의 성공한 경제인들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미국은 금융에 있어서도 재외한인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금융기관이 있는 유일한 국가이다.

이러한 정치적, 경제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재미한인의 경제와 특히 한인은행에 대한 연구

1) U.S. Census Bureau

2) 한미은행, 웰셔은행, BBCN은행, 태평양은행, US메트로은행, 유니티뱅크, CWBB은행, 오픈은행, 신한아메리카은행(한국진출은행), 우리아메리카은행(한국진출은행)

3) 자료: FDIC(www.fdic.gov)

4) 한인관련은행은 모국에 본점을 두고 미국시장에 투자한 한국진출은행과 순수 교민자본으로 설립된 한인은행으로 나눌 수 있으며, 본 연구의 대상은 후자인 한인은행에 한정하였다.

는 그리 많지 않다. 기존에 재외 한인에 관한 연구도 국내외 한인학자들을 중심으로 적지 않게 이루어져 왔다(Yu et al, 1987; Yu, 1997; Min, 1996, 1998; 윤인진, 1996, 2000; 이광규, 2000 등).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들이 사회학적 혹은 인류학적 관점에서 수행되어 왔으며, 한인경제에 대한 연구는 2000년 이후 서서히 시작되었다. 그러나 한인경제와 관련 연구들도 주로 전반적인 재외 한인경제나 기업활동, 모국 투자에 대한 현상파악과 정책방안 제안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김태기 외, 2005; 안현효, 2010, 안현효·정연선, 윤인진, 2002; 이승준, 2007; 장선미 외 2006; Lee, John Y., 1983; Yi, Jeong Duk, 1994). 또한 2008년 금융위기가 세계경제와 미국경제 특히 미국내 주류 금융자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내외 연구는 많으나(Gowan, 2008; Rasmus, 2009, Konings, 2008; 김경수·허익구, 2012; 이종권, 2012; 전창환, 2009; 최문성, 2012; 최창열·함형범, 2011등) 소수계 민족금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한인 경제와 은행에 대한 연구는 세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먼저 미국 통계청의 Census자료를 이용해 2000년 이후 최근까지 한인의 소득수준 및 교육 등을 비롯한 경제관련 현황을 살펴볼 것이다. 둘째, 미연방예금보험공사(FDIC: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의 자료를 이용해 LA지역 한인은행의 현황(자산, 고용, 예금, 부채 등)에 대한 분석을 하고 한인은행관련 전문가와 심층 인터뷰를 통해 이들 은행의 자금조달 및 자산운용행태 분석할 것이다. 세 번째로 한인경제에 대한 분석자료와 은행들의 자료 및 인터뷰자료를 이용하여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전후 재미 경제와 한인은행의 변화 및 경영상 문제점 및 발전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미국내 한인경제의 변화

이 장에서는 미국 센서스 통계국의 자료를 이용해 2000년 이후 부터 최근까지 한인경제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미국의 총인구는 2000년 2억 8천백명에서 2007년 3억을 돌파해 2014년 현재 약 3억4천1백만명이며, 캘리포니아에는 그 중 약 11.2%에 해당하는 3천8백만명이 거주하고 있어 50개주 가운데 인구의 비중이 가장 높다. 미국전체 한인의 수는 2000년 107.6만명에서 2010년 145.6만명으로 증가하고, 2014년 현재 147.7만명으로 기간동안 약 37.1% 증가하여 미국전체 인구증가율(21.2%)이나 캘리포니아 총인구의 증가율(13.6%)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 한인 역시 캘리포니아 주 거주 비중이 가장 높은 편이나 전체한인 중 캘리포니아 거주비율이 31.3%로 전체미국인(11.2%)에 비해 세배가량 높다.

〈표 1〉 미국내 한인 수의 변화

(단위 명, %)

		2000	2005	2010	2014	2000-2014 증가율
미국전체	총인구	281,421,906	288,378,137	303,965,272	341,107,084	21.2%
	한인 수 (비중)	1,076,872 (0.38)	1,246,240 (0.43)	1,456,076 (0.48)	1,476,577 (0.43)	37.1%
캘리포니아주	총인구	33,501,263	35,278,768	36,637,290	38,066,920	13.6%
	한인 수 (비중)	345,882 (1.03)	401,980 (1.14)	441,438 (1.20)	461,748 (1.21)	33.5%

자료: 미국 Census통계(<http://factfinder.census.gov/faces/nav/jsf/pages/index.xhtml>)

다음으로 소득수준을 살펴보았다. 먼저 가구당 소득의 중위값(median)을 보면 미국내 한국인 가구당 소득수준은 미국 평균보다는 높은 편이나 캘리포니아 주 평균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인당 소득 평균을 보면 2000년과 2005년에는 한국인의 소득수준이 미국전체에 비해 낮았으나 2010년과 2014년에는 미국평균을 추월하였으며, 2014년의 경우 31,790달러로 캘리포니아 주 일인당 소득의 평균(30,441달러)보다도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내 한국인들의 소득수준이 점차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표 2〉 소득수준

	가구당 소득(중위값)			일인당소득(평균)		
	미국전체	캘리포니아주	한국인	미국전체	캘리포니아주	한국인
2000	41,994	53,025	47,624	21,587	22,711	18,805
2005	46,242	53,629	47,765	25,035	26,800	25,478
2010	50,046	60,512	50,316	26,059	27,353	26,417
2014	53,657	65,070	58,573	28,889	30,441	31,790

자료: 미국 Census통계(<http://factfinder.census.gov/faces/nav/jsf/pages/index.xhtml>)

다음으로 교육수준과 고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교육수준을 보면 25세 이상 인구가운데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인구의 비중은 미국전체의 경우 2014년 기준 29.3%로 2000년 이래 30%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미국전체에 비해 교육수준이 약간 높아 2010년 30.1%, 2014년 31.0%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인의 경우 미국전체나 캘리포니아 주 평균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으로 2014년 54.4%를 기록하고 있다. 미국내 아시아인의 경우 전통적으로 높은 교육열을 보이고 있어, 2014년 기준 미국내 인도인의 경우 72.5%, 중국인 53.4%, 일본인 50.1%로 전체적으로 아시아인의 교육수준이 미국평균에 비해 월등히 높다.

<표 3> 25세 이상 인구중 학사학위 이상 교육 인구(%)

	미국전체	캘리포니아주	한국인
2000	24.4	26.6	43.8
2005	27.2	29.5	53.4
2010	27.9	30.1	52.9
2014	29.3	31.0	54.4

자료: 미국 Census통계(<http://factfinder.census.gov/faces/nav/jsf/pages/index.xhtml>)

다음으로 2005년과 2010년, 2014년의 한국인의 고용형태별 분포를 통해 지난 10여년간 변화를 살펴보았다. 2014년 기준 한국인의 자영업비중은 10.5%로 미국전체나 캘리포니아주 평균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⁵⁾. 미국내 한국인들의 자영업 비중이 여전히 높기는 하지만 편이나 2005년 14.3%에 비하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고용형태별 분포(%)

	2014			2010			2005		
	사기업	공공부문	자영업	사기업	공공부문	자영업	사기업	공공부문	자영업
미국전체	79.9	13.9	6.2	78.3	15.3	6.4	78.2	14.6	7.2
캘리포니아주	78.3	13.3	8.4	76.8	14.6	8.6	76.6	14.1	9.3
한국인	80.2	9.3	10.5	78.9	9.5	11.6	76.2	9.5	14.3

자료: 미국 Census통계(<http://factfinder.census.gov/faces/nav/jsf/pages/index.xhtml>)

미국내 한국인의 인구 수는 아직 0.5%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나 교육수준이나 소득수준으로 평가할 때 그 위상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교육수준은 미국인의 평균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이며, 소득수준도 점차 높아져 미국인의 평균을 추월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역시 기존의 자영업 비중이 점차 감소하여 안정적인 고용 형태로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Ⅲ. 한인은행의 경영현황

다음으로 캘리포니아소재 한인은행의 현황에 대해 살펴보겠다. 먼저 한인은행의 역사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2001년 기준 캘리포니아소재 한인은행은 총 6개로 Center Bank, Hanmi Bank,

5) 한인의 자영업 비중은 아시안중에서도 가장 높으며, 2014년 기준 중국인(5.5%), 일본인(7.4%), 인도인(3.7%)등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Nara Bank, Sachan Bank, Uniti Bank, Wilshire State Bank이다. 그리고 2002년 Mirae Bank가 설립되고, 이듬해에는 Pacific City Bank가 설립되었다. 이후 2005년에는 흑인 등 소수계 지역 주류 인사들이 설립한뱅크 오브 오클랜드(1982년 설립)를 인수하면서 Innovative Bank로 개명해 출범을 하고, 중소기업대출 전문을 표방하는 Commonwealth Business Bank, 그리고 First Standard Bank가 출범하면서 2005년 기준 한인은행은 모두 11개로 증가한다. 이후 2006년 US Metro은행이 출범하여 캘리포니아내 한인은행은 총 12개로 가장 많은 은행이 영업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후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세계경기침체와 부동산 경기 하락, 금융권 신용경색 등으로 2008년 미래은행이 그리고 2009년 Innovative Bank이 각각 영업정지 명령을 받아 이듬해 폐쇄되었다. 뿐만 아니라 한인은행간의 합병도 활발하게 이루어져 2011년 중앙은행과 나라은행이 합병해 한인은행으로서는 가장 규모가 큰 BBCN은행이 출범하게 되었으며, 2013년 부실경영으로 폐쇄위기에 있던 새한은행을 월셔스테이트 은행이 인수하면서 월셔은행으로 재출범하게 되었다. 이후 Commonwealth Business Bank은 2013년부터 CWBB은행으로 First Standard Bank은 2010년부터 Open Bank로 각각 명칭을 바꾸어 영업을 하고 있다⁶⁾. 이에 2014년 기준 캘리포니아소재 한인은행은 BBCN Bank, CWBB, Hanmi Bank, Open Bank, Pacific City Bank, Uniti Bank, US Metro Bank, Wilshire Bank으로 총 8개 은행이 영업 중이다. 이상 주요 한인은행들의 현황을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표 5> 한인은행의 현황

은행명	설립연도	headquarters	비고
BBCN Bank	Dec. 2011	Los Angeles	
CWBB	Mar. 2005	Los Angeles	
Hanmi Bank	Dec. 1982	Los Angeles	
Open Bank	Jun. 2005	Los Angeles	
Pacific City Bank	Sep. 2003	Los Angeles	
Uniti Bank	Dec. 2001	Buena Park	
US Metro Bank	Sep. 2006	Garden Grove	
Wilshire Bank	Dec. 1980	Los Angeles	
Center Bank	Mar. 1986		2011년 M&A로 BBCN
Innovation Bank	Jul. 2005		2009년 영업정지
Mirae Bank	Jul. 2002		2008년 영업정지
Nara Bank	Jun. 1989		2011년 M&A로 BBCN
Sachan Bank	Jun. 1991		2013년 Wilshire에서 인수

자료: FDIC, Bank statistics

6) 2015년 12월 BBCN은행과 월셔은행이 전격적인 합병을 선언했으나 아직 실질적인 절차에 들어가지는 못했으며, 합병이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현재는 은행데이터를 얻을 수 없어 본 연구에서는 2014년 말 기준 8개 한인은행을 대상으로 분석한다.

현재 영업중인 8개 한인은행을 중심으로 그 규모를 살펴보기 위해 2014년 12월말 기준 총 자산과 고용인 수, 그리고 지점 수를 살펴보았다. 2014년 12월 기준 한인은행의 총자산을 보면 2011년 Center Bank와 Nara Bank의 M&A로 탄생한 BBCN은행이 7,135.5 백만달러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Hanmi Bank(4,227.7백만달러), Wilshire Bank(4,150.0백만달러)의 순이며, 나머지는 모두 10억불미만으로 나타났다.

<표 6> 한인은행의 규모: 지점 수, 고용, 총자산(2014. 12. 31 기준)

은행명	branches	Total employees	Total assets(\$ Mil)
BBCN Bank	52	916	7,135.5
CWBB	3	103	653.5
Hanmi Bank	51	690	4,227.7
Open Bank	5	101	530.9
Pacific City Bank	9	171	893.0
Uniti Bank	3	50	189.9
US Metro Bank	1	30	110.0
Wilshire Bank	34	525	4,150.0

자료: FDIC, Bank statistics

2001년부터 2014년 기간동안 한인은행의 규모를 캘리포니아 소재 전체은행과 비교해 보면 <표 7>과 같다. 먼저 은행의 수를 보면, 한인은행은 2001년 총 6개에서 2006년 12개까지 증가하다 2014년 8개로 다시 감소하여 2001년에 비해 2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캘리포니아 전체 은행의 수는 2001년 344개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다 2007년 약간 증가했으나 다시 크게 감소하여 2014년 211개로 기간 동안 전체의 1/3정도가 감소하였다. 다음으로 자산 규모를 보면, 한인은행의 총자산은 2001년 3,152.3백만불에서 2014년 17,890.4백만불로 약 5.7 배 증가했으며, 한인은행 자산이 캘리포니아은행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1년 0.41%에서 2014년 2.95%로 약 7배 이상 증가하였다. 한인은행의 총자산이 캘리포니아전체은행의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0.41%에 불과하였으나 2014년 기준 2.95%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인은행의 총종업원 수는 2001년 말 1,073명에서 2007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2008년 이후 금융위기로 감소하였으나 2011년 이후 다시 증가하여 2014년 기준 총 2,586명을 기록하였다. 캘리포니아 전체 은행의 직원 수는 2001년 161,413명에서 2003년까지 증가하다 이

7) 캘리포니아 소재 은행중 자산규모가 가장 큰 은행은 MUFG Union Bank로 2014년 12월말기준 총자산은 113,120.1백만 달러를 기록한 일본계은행이다. BBCN은행은 캘리포니아소재 은행 중 총자산규모 14위를 기록하였다.

후 큰폭으로 감소하여 2014년에는 66,892명으로 기간동안 약 60%의 인력이 감축되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업무처리가 간편하고 신속해져 은행권의 노동요소수요가 현격히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인커뮤니티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운용자산이 증가하고 영업망 확대, 한인이용고객 증가 등의 요인 때문으로 한인은행의 인력수요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표 7> 한인은행 및 캘리포니아은행의 자산 및 고용(2001년~2014년)

(단위: 개, 백만불, %)

연도	한인은행			캘리포니아 은행*			한인은행자산 비율(a/b)
	개수	총자산(a)	직원 수	개수	총자산(b)	직원 수	
2001	6	3,152.3	1,073	344	768,274.2	161,413	0.41
2002	7	4,296.1(36.3)	1,184	326	853,201.9(11.1)	176,890	0.50
2003	8	5,536.6(28.9)	1,330	319	963,101.8(12.9)	207,190	0.57
2004	8	7,950.7(43.6)	1,615	297	839,061.5(-12.9)	131,695	0.95
2005	11	10,150.7(27.7)	1,944	304	656,503.3(-21.8)	102,432	1.55
2006	12	11,918.1(17.4)	2,268	305	573,816.5(-12.6)	93,703	2.08
2007	12	13,421.8(12.6)	2,449	313	452,724.3(-21.1)	79,121	2.96
2008	12	13,931.9(3.8)	2,140	312	459,297.3(1.5)	64,676	3.03
2009	11	14,277.0(2.5)	1,923	294	451,941.6(-1.6)	61,265	3.16
2010	10	13,055.5(-8.6)	1,936	272	474,640.1(5.0)	63,119	2.75
2011	9	12,540.6(-3.9)	1,905	254	492,605.4(3.8)	64,265	2.55
2012	9	13,434.9(7.1)	2,061	241	509,302.8(3.4)	65,367	2.64
2013	8	15,031.5(11.9)	2,221	224	550,738.4(8.1)	65,274	2.73
2014	8	17,890.4(19.0)	2,586	211	607,249.4(10.3)	66,892	2.95

주: 1) *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FDIC에 가입한 은행의 평균을 나타냄.

2) ()은 전년대비 증가율임

자료: FDIC

은행의 일반적인 자금조달원(부채)은 크게 예금, 차입 혹은 자본금이 있다. <표 8>에 의하면 한인은행의 경우 예금, 자본금과 타기관으로부터 차입금을 합한 총부채가 규모면에서 보면 2001년~2014년 기간동안 5.7배가 증가하였다(3,152백만달러->17,890백만달러). 캘리포니아 전체 은행의 부채가 2001년 768,274백만달러에서 2003년 963,102백만달러로 고점을 기록한 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여 2014년 기준 607,249로 2001년 대비 약 20% 감소한 것과 비교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부채는 그 자체의 증감보다는 구성요소-특히 예금의 비중 및 증감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한인은행의 부채 중 총예금 현황을 살펴보면 2001년~2014년 기간동안 지속적인 신장세를 보여 기간 동안 한인은행의 총예금은 약 5배 정도 증가했다. 총부채 중 예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한인은행의 경우 2001-2014년 기간동안 전체적으로 평균 82.8%로 캘리포니아 전

체은행의 67.6%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이다. 이는 한인은행들의 이는 자금조달의 예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것으로 조달의 원천이 다양화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캘리포니아 전체 은행의 경우 예금을 통한 조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는데 이는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 CD발행 등을 통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기간동안 캘리포니아 전체 은행들의 예금/총부채비율은 증가하는데 비해 한인은행의 경우 이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89.6%→82.5%)하고 있음은 한인은행들이 자본조달의 원천을 다양화하고 있음으로 해석된다. 은행의 자본조달원천이 다양해질수록 은행의 융자여력이 증대되고 사업자금을 필요로 하는 한인들에게 필요자금을 융통해줌으로서 한인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표 8> 한인은행 및 캘리포니아은행의 총부채 및 예금현황

(단위: 백만불)

연도	한인은행			캘리포니아 은행*		
	총부채	총예금	총예금/총부채	총부채	총예금	총예금/총부채
2001	3,152	2,825	89.6	768,274	466,467	60.7
2002	4,296	3,757	87.5	853,202	552,316	64.7
2003	5,537	4,656	84.1	963,102	618,395	64.2
2004	7,951	6,689	84.1	839,061	501,670	59.8
2005	10,151	8,646	85.2	656,503	385,418	58.7
2006	11,918	9,786	82.1	573,816	371,515	64.7
2007	13,422	10,459	77.9	452,724	304,370	67.2
2008	13,932	10,852	77.9	459,297	292,292	63.6
2009	14,277	11,746	82.3	451,942	314,410	69.6
2010	13,056	10,583	81.1	474,640	326,909	68.9
2011	12,541	10,286	82.0	492,605	359,483	73.0
2012	13,435	10,900	81.1	509,303	391,412	76.9
2013	15,031	12,302	81.8	550,738	421,104	76.5
2014	17,890	14,754	82.5	607,249	474,695	78.2

주: *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FDIC에 가입한 은행의 평균을 나타냄.
자료: FDIC

다음으로 은행의 대손충당금(allowance for bad debts)을 통해 은행의 체질을 진단해 보도록 하겠다. 대손충당금은 각 은행들이 대출손실에 대비해 별도로 준비하는 자금으로 이 금액이 많을수록 부실대출이 많아서 이를 정리하는데 드는 비용이 많다는 것이므로 그만큼 부실대출이 많고, 이는 은행의 체질이 나빠졌음을 의미한다. 한인은행의 총대손충당금은 2001년 이후 201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나 2007년까지의 증가는 평균 20~30%의 증가율을 보이거나 금융위기와 불경기의 시작된 2008년과 2009년에는 각각 83%와 6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불경기로 인해 부실대출이 터져나오기 시작한 2009년과 2010년 한인은행의 총대손충당금은 4억달러를 초과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4년에는 204백만달러로 2010년의 절반 수준 이하로 감소하였다. 은행당 평균대손충당금도 2009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로 그만큼 부실대출이 한인은행의 체질이 나아졌음을 의미한다. 캘리포니아 전체은행의 대손충당금역시 2008년~2010년 높은 수준이다 최근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평균대손충당금은 한인은행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9〉 한인은행 및 캘리포니아은행의 대손충당금 현황

(단위: 백만불,%)

연도	한인은행		캘리포니아 은행*	
	총대손충당금	평균대손충당금	총대손충당금	평균대손충당금
2001	31	5.2	6,621	19.3
2002	38(22.6)	5.4	6,686(1.0)	20.6
2003	50(31.6)	6.2	6,420(-4.0)	20.2
2004	66(32.0)	8.3	4,750(-26.0)	16.0
2005	84(27.3)	7.6	3,759(-20.9)	12.4
2006	103(22.6)	8.6	3,396(-9.7)	11.2
2007	138(34.0)	11.5	4,114(21.1)	13.2
2008	253(83.3)	21.1	5,989(45.6)	19.3
2009	415(64.0)	37.7	7,069(18.0)	24.1
2010	437(5.3)	43.7	6,851(-3.1)	25.3
2011	312(-28.6)	34.7	5,721(-16.5)	22.6
2012	247(-20.8)	27.4	5,238(-8.4)	21.8
2013	217(-12.1)	27.2	4,821(-8.0)	21.6
2014	204(-6.0)	25.5	4,567(-5.3)	21.7

주: *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FDIC에 가입한 은행의 평균을 나타냄. ()는 증가율
자료: FDIC

한인은행의 대출현황을 보면 2000년대 상반기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다 2008년을 기점으로 2009년~2011년의 3년 동안은 감소하였다. 이후 2012년부터는 증가하여 2014년 13,680.8백만달러로 총 캘리포니아 전체 은행대출의 약 3.3%를 차지하고 있다. 한인은행의 급속한 신장세와 달리 캘리포니아은행의 대출은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정체 또는 감소세를 보이다 최근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의 대출은 크게 부동산대출(All real estate loans), 농업대출(Farm loans), 상업대출(Commercial and industrial loans), 개인대출(Loans to individuals), 그리고 기타(All other loans & leases)로 구분될 수 있다. 한인은행과 캘리포니아 은행의 부문별 대출현황을 보면 전체대출에서 부동산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인은행과 캘리포니아 전체은행

모두 가장 높다. 그러나 한인은행의 경우 2001년 이래 부동산대출이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4년 기준 83.1%까지 높아진데 비해 캘리포니아 전체은행은 부동산대출의 전체대출 비중이 점차 낮아져 2014년 기준 67.5% 수준으로 한인은행에 비해 현저히 낮다. 한인은행들이 담보를 확보할 수 있는 부동산에 치중하고 신용카드론 등 소비자 금융에서 발생하는 신용리스크를 회피하는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부동산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한인은행의 상업대출과 개인대출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캘리포니아 전체은행의 경우 상업대출비중을 점차 확대해 가고 있다.

<표 10> 한인은행 및 캘리포니아은행의 총대출 및 부문별 현황

(단위: 백만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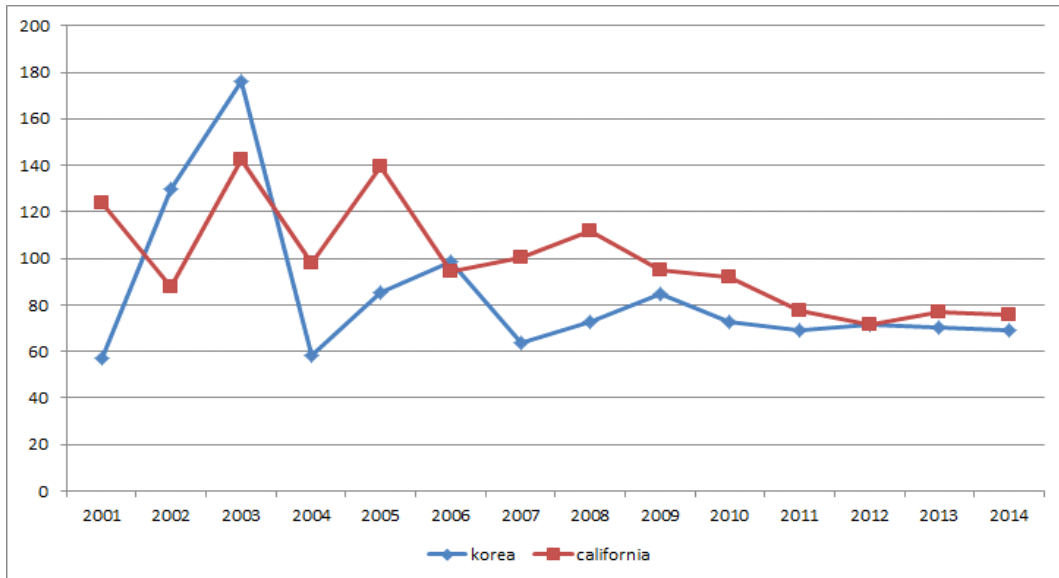
연도	한인은행						캘리포니아은행*					
	총대출 (백만불)	부동산	농업	상업	개인	기타	총대출 (백만불)	부동산	농업	상업	개인	기타
2001	2,274.9	60.8	-	31.3	5.4	2.6	521,974.6	78.5	0.9	13.1	4.9	2.6
2002	3,052.4	66.6	-	26.8	4.4	2.3	600,274.8	80.4	0.8	11.0	5.4	2.3
2003	4,135.6	70.6	-	25.0	3.8	0.7	711,147.7	82.9	0.8	9.2	5.4	1.7
2004	6,113.7	70.6	-	25.1	3.4	1.0	660,423.0	87.8	0.4	6.0	4.6	1.2
2005	7,637.4	71.3	-	24.4	3.5	0.8	521,579.1	82.9	0.5	8.2	6.9	1.4
2006	9,489.0	72.8	0.0	23.3	3.2	0.7	429,875.3	82.6	0.8	11.3	3.8	1.5
2007	11,251.1	74.1	-	23.1	2.5	0.4	328,883.0	74.7	1.1	16.6	5.2	2.3
2008	11,769.1	76.1	-	21.6	2.0	0.4	332,020.6	72.5	1.2	18.2	4.9	3.1
2009	10,980.0	78.9	-	18.1	1.5	1.5	303,378.1	74.0	1.3	17.0	4.9	2.7
2010	10,121.3	78.3	-	18.7	1.2	1.8	320,996.2	75.8	1.3	15.3	4.7	2.8
2011	9,505.7	77.4	-	17.6	1.2	3.7	322,621.0	72.4	1.4	17.6	4.7	3.9
2012	10,198.2	81.0	-	17.5	0.9	0.6	334,187.8	69.8	1.6	19.6	4.8	4.1
2013	11,797.3	82.2	-	16.4	0.7	0.7	367,467.0	69.1	1.6	19.5	4.6	5.2
2014	13,680.8	83.1	-	14.7	0.7	1.5	410,133.1	67.5	1.4	20.0	4.4	6.6

주: *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FDIC에 가입한 전체은행의 합을 나타냄.

각 부문별 대출은 총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자료: FDIC

다음으로 한인 은행들의 효율성비율을 살펴보았다. 효율성은 비이자경비에서 무형자산상환 비용을 감한 금액과 순이자소득 및 비이자소득을 합한 값의 비율로 계산한다. 한인은행의 평균 효율성비율은 후발은행의 시장진입으로 높아진 2002년도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다. 캘리포니아은행 평균도 하락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후발은행의 경우 건물임대료 등 비이자경비가 수입에 비해 크기 때문에 효율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날 수 있다. 효율성 비율은 캘리포니아은행들의 평균과 한인은행의 평균간 차이가 크지 않으며, 전반적으로 한인은행의 평균이 낮은 편이다.



〈그림 1〉 한인은행 및 캘리포니아은행의 효율성 비율(단위 : %)

자료: FDIC

은행의 수익성구조를 순이자소득(Net interest income), 비이자소득(Total noninterest income) 과 순이자마진율(Net interest margin) 그리고 순수입현황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표 11>에 의 하면 한인은행의 경우 전년대비 순이자소득이 감소한 해는 2002년, 2008년, 2009년, 2011년의 4개해로 나타났으나, 이들 해를 제외하고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2014년 순이자소득이 77,554백만불을 기록해 2001년 21,101백만불의 3.5배정도에 달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전체 은행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다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2014년 의 순이자소득은 2000년 초반 수준에 근접하는 수준이다.

비이자소득 역시 한인은행은 2001년에 비해 2014년 약2배 증가한데 비해 캘리포니아 전체 은행의 경우 기간동안 약20%이상 감소하여 2014년 한인은행보다 약 4억불 높은 데 불과하 다. 비이자소득은 수수료수입, SBA론 보증 등을 포함하는데 한인은행의 경우 기간동안 전체 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인은행들의 대출, 유가증권매입 등 자산운용 외에 보증서비스 등 서비스부문을 확대한 결과 비이자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순 이자수입과 평균자산의 비율을 퍼센트로 표시되는 은행영업의 실질적 수익성 지표로 삼는 ‘순이자 마진율’을 보면, 전반적으로 캘리포니아은행의 순이자마진율이 한인은행에 비해 다 소 높은 수준이다. 한인은행의 경우 2009년 2.93%로 급락한 이후 다시 증가하였으나 2000년 대 중하반기의 4% 수준을 회복하고 있지는 못한 실정이다.

<표 11> 한인은행 및 캘리포니아은행의 순이자소득, 비이자소득, 순이자 마진을

(백만불,%)

연도	한인은행			캘리포니아 은행*		
	순이자소득	비이자소득	순이자마진을	순이자소득	비이자소득	순이자마진을
2001	21,101.3	8,897.5	4.05	70,162.9	29,646.3	4.67
2002	20,872.9	9,203.7	3.71	81,473.9	31,671.6	4.62
2003	22,448.4	9,989.5	3.44	98,464.5	50,391.1	4.24
2004	34,594.4	12,998.5	4.31	81,304.0	32,348.8	4.38
2005	36,688.6	10,575.9	4.10	66,407.8	18,719.1	4.55
2006	41,250.0	10,842.8	4.25	53,516.3	13,062.1	4.69
2007	44,392.9	11,100.4	4.44	46,237.9	14,417.1	4.43
2008	41,454.1	8,715.3	3.63	45,388.8	6,476.9	4.04
2009	38,611.7	10,047.6	2.93	49,399.9	22,813.5	3.96
2010	46,811.9	8,732.8	3.61	57,959.0	17,427.7	4.08
2011	33,312.0	7,459.3	3.46	65,098.5	16,106.5	4.16
2012	57,286.1	12,619.9	3.81	70,035.0	18,812.0	4.09
2013	67,515.3	16,204.4	3.88	75,469.5	18,047.1	3.93
2014	77,554.4	18,030.5	3.84	85,030.1	22,078.9	3.89

주: *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FDIC에 가입한 은행의 평균을 나타냄.
자료: FDIC

IV. 한인은행의 한인경제에서의 역할 및 문제점과 해결방안

이 장에서는 앞서 한인은행의 현황과 경영성과를 분석한 결과와 현지 신문기사 및 금융계 인사들을 인터뷰한 결과를 통해 한인은행이 직면한 문제 및 해결방안에 대해 정리하고자 한다. 현지 심층인터뷰는 2015년 9월부터 약 3개월간 금융관련 인사 총 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모두 금융관련 업무를 20년 정도 수행한 현지금융인들이다⁸⁾. 평균 인터뷰 시간은 2시간 정도로 주요 인터뷰내용은 한인은행에 근무하는 기간동안 경험을 비롯하여 비교적 최근의 금융위기이후 한인은행의 변화등에 초점을 두고 질문하였다.

한인은행의 현황을 살펴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한인은행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BBCN은행, Hanmi Bank, Wilshire Bank 등이 주류은행들에 뒤지지 않는 규모의 은행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1년 Center Bank와 Nara Bank의 M&A로 탄생한 BBCN은행은 2014년 기준 총자산규모 7,135,461 천달러

8) 심층 인터뷰에 응한 대상은 최대한인은행인 BBCN 은행의 이사를 비롯하여 CWBB은행의 행장 및 전 한미은행 직원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추가로 미주 헤럴드신문 경제부 기자와 캘리포니아 주립대 교수 등과도 관련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로 FDIC에 등록된 총 211개 캘리포니아소재 은행 중 14위를 기록하였고, 다음으로는 Hanmi Bank(4,227,728천달러), Wilshire Bank(4,149,966천달러)이 각각 21위와 22위를 기록하였다.

두 번째는 최근 개선되는 한인은행의 체질을 볼 수 있다. 앞서 <표 9>의 은행 대손충담금 규모로 볼 때 예전에 비해 부실대출이 많이 줄어들었으며, 이는 은행의 체질이 나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실대출문제가 상당부분 해결되자 은행들은 성장을 위한 투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으며, 이로 인해 은행의 자산과 고용 증가 등 은행의 규모가 양적으로 팽창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캘리포니아 평균에 비해 낮지 않은 한인은행들의 경영성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인은행들의 효율성, 수익성 등을 볼 때 경영성과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다음으로 한인은행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크게 다섯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 번째 문제점은 자금조달의 예금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지적할 수 있다. <표 8>에서 본 바와 같이 총부채 중 예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한인은행의 경우 2001-2014년 기간동안 전체적으로 평균 82.8%로 캘리포니아 전체은행의 67.6%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이다. 캘리포니아 전체 은행의 경우 예금을 통한 조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는데 이는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 CD발행 등을 통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있으나 한인은행의 경우 상대적으로 자금조달에 있어 예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것으로 조달의 원천이 다양화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자금조달에 있어 예금의존도가 높으면, 한인경제성장에 따라 증가하는 대출수요를 감당하기 힘들어져 장차 한인경제성장을 주도하는 투자를 지원할 수 있는 여력에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기간동안 캘리포니아 전체 은행들의 예금/총부채비율은 증가하는데 비해 한인은행의 경우 이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89.6%→82.5%)하고 있어 한인은행들도 자본조달의 원천 다양화를 노력하고 있음으로 해석된다. 은행의 자본조달원천이 다양해질수록 은행의 융자여력이 증대되고 사업자금을 필요로 하는 한인들에게 필요자금을 융통해줌으로써 한인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문제점은 한인은행들의 대출형태에서 찾아볼 수 있다. <표 10>의 부문별 대출현황의 2014년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전체대출에서 부동산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캘리포니아 전체은행은 67.5% 수준인데 비해 한인은행의 경우 83.1%를 차지해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인은행들이 담보를 확보할 수 있는 부동산에 치중하고 리스크가 높은 상업대출이나 개인대출에 적극적이지 않음은 한인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양해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한인기업들의 회계투명성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세 번째 문제는 전체적으로 은행권의 노동수요가 현저히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인은행들의 금융인력 수요는 증가함에 따른 관련 비용 문제이다. <표 7>에서 볼 수 있듯이 한인은행권의 평균직원 수는 2001년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4년에는 캘리포니아 전체은행의 평균직원수를 추월하였다. 시티뱅크와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BOA) 등 6대 은행은 2014년 3만 여명을 해고하였으며, 올해(2015년) 1분기에 일제히 감원에 나서 4천여 명을 감원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⁹⁾. 미국 주류은행들의 이같은 고용축소와 상반되게 확대되는 한인은행들의 고용은 필연적으로 임금비용의 문제를 야기할게 될 것이다. 다음의 한인은행과 캘리포니아 전체은행의 은행직원들의 임금평균을 보면, 2001년 한인은행들의 임금평균은 캘리포니아 전체은행들의 임금평균의 40%가 채 안 되었으나 2014년 70%를 넘는 수준으로 증가하여 한인은행들의 고용증가로 인한 임금비용문제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표 12> 한인은행 및 캘리포니아은행의 총임금 및 평균임금(달러)

연도	한인은행		캘리포니아은행*	
	총임금	평균임금	총임금	평균임금
2001	58,289	9,714.8	8,927,521	26,027.8
2005	126,898	11,536.2	7,085,976	23,386.1
2010	133,632	13,363.2	5,759,958	21,254.5
2014	214,161	26,770.1	7,881,102	37,529.1

주: *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FDIC에 가입한 은행의 평균을 나타냄.
 자료: FDIC

네 번째 문제는 한인은행들의 향후 수익성과 성장동력에 대한 우려이다. 한인은행들은 자산과 고용 등 외형적으로 실적 증가를 나타내고 있지만 유독 실질적인 수익성을 드러내는 ‘순이자 마진(Net Interest Margin·NIM)’을 보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대출이자를 덤핑해가면서 실적경쟁을 펴 외형은 키웠지만 예금유치를 위해 이자를 높인데 따라 실수익이 줄어들었다는 의미다. 이는 지금까지 한인은행의 외적 성장을 도왔던 ‘박리다매’의 영업구조가 이제 더 이상 제 역할을 하기 힘들다는 것을 예측하게 하며, 경쟁력을 강화하는 인수합병(M&A)과 신상품 개발 그리고 지점 확장을 통한 새 시장 개척이 사실상 한계에 부딪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인은행중 규모가 큰 BBCN이 일리노이주와 한국에 지점과 사무소를 차리고, 월셔은행은 조지아와 텍사스에 지점망을 구축하는 것도 순이자 마진 개선과 수익원 확보를 위해서 취한 조치였지만 새로운 시장에 대한 분석이 어렵고 그 시장에서 수익을 낸다는 보장도 없기 때

9) 헤럴드경제(2015. 4. 20)http://www.heraldk.net/article.php?id=49685

문에 이러한 외적 확장이 성공할 지 여부는 미지수이다.

다섯 번째는 미국 주류은행과의 경쟁문제이다. 이민의 역사가 100년을 넘어서는 현재 한인 기업체들은 점차 1.5세대, 2세대 경영으로 세대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민 1세대에 비해 미국주류의 문화에 보다 친숙한 경영진이 주거래은행을 BOA나 Wells Fargo 등 현지은행으로 이용하고 있는 추세가 점차 증가해 감에 따라 현지인들을 고객으로 확보하지는 못하면서 주요고객을 현지은행에 뺏겨감에 따른 문제들이 한인은행의 또 다른 고민이 되고 있다.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미국내 한인경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지역을 중심으로 한인경제의 현황과 한인금융기관의 현황과 당면문제, 그리고 이의 해결방안에 대해 분석하였다. 미국 통계청의 Census자료와 미연방예금보험공사(FDIC: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의 자료를 이용하여 2000년 이후 최근까지 한인경제 및 한인은행의 변화에 관한 분석하고, 금융기관 관계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인경제의 현실과 당면문제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한인경제에 대한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미국내 한인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한인경제 역시 그 규모가 지난 10여년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인들의 소득수준은 점차 증가하여 최근 미국인의 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고용형태 역시 자영업의 비중이 점차 감소하면서 안정적인 형태로 바뀌고 있다.

한인은행의 현황에 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BBCN은행, Hanmi Bank, Wilshire Bank 등이 주류은행들에 뒤지지 않는 규모의 은행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최근 개선되는 한인은행의 체질을 볼 수 있다. 은행대손충담금 규모로 볼 때 예전에 비해 부실대출이 많이 줄어들었으며, 이는 은행의 체질이 나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한인은행들의 경영성과 역시 캘리포니아 평균에 비해 낮지 않음을 볼 수 있었다.

한인은행의 당면문제는 크게 다섯가지 정도로 요약된다.

첫째, 자금조달의 예금에 대한 높은 의존도, 둘째, 한인은행들의 높은 부동산대출 비중, 셋째, 한인은행들의 금융인력 수요는 증가에 따른 관련 비용 문제, 넷째한인은행들의 향후 수

익성과 성장동력에 대한 우려, 마지막으로 미국 주류은행과의 경쟁문제이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첫째, 한인은행의 자본조달원천을 현재의 예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자본조달의 원천 다양화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대출구조에 있어서도 기존에 담보대출에 의존보다는 리스크에 평가에 대한 전문성을 높혀 상업대출이나 개인대출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은행의 효율성을 올리기 위해서는 인력감축과 더불어 정보통신 관련 과감한 투자와 재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외형적 성장과 더불어 은행의 내실과 새로운 성장원을 찾아야 할 것이며, 주류은행과의 경쟁에 있어서도 틈새시장의 탐색과 현지인을 고객으로 흡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경수·허익구(2012), “미국의 금융충격이 한국과 ASEAN 주식시장에 미친 영향”, 경영교육 연구, 73권, pp. 85-113.
- 김태기·임채환·장선미·홍성우·손기형·이승준(2005), 재미한인사회의 경제환경, 서울, 집문당.
- 안현효(2010), “사회자본과 화교경제: 캘리포니아주 한인 및 중국계은행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제13권 제4호, pp. 41-662.
- 안현효·정연선(2006), “미국에서의 한인 금융: 캘리포니아에서 한국계와 중국계 은행의 비교”, 한국지역지학회지, 제12권 제1호, pp. 154-171.
- 윤인진(1996), “재미 한인의 민족 정체성과 애착의 세대간 차이”, 재외한인연구, 6, pp.66-95.
- _____(2000), “미국으로의 한인 이주와 이민가족의 세대갈등”, 재외한인연구, 제9권, pp.5-44.
- _____(2002), 재외동포 모국투자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 서울, 재외동포재단.
- 이광규(2000), 재외동포,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이승준(2007), “재미한인 금융산업의 실태: LA지역을 중심으로”, 디아스포라연구, 제1권, pp.199-241.
- 이종권(2012), “금융위기 이후의 미국경제 진단, 불완전한 금융개혁과 심화되는 노동의 위기 ; 미국 주택금융개혁의 방향과 역설: 서브프라임 위기와 GSE 부실문제를 중심으로”,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21권, pp. 5-80
- 장선미·임채환·김태기·홍성우·손기형·이승준(2006), 재미한인기업의 경영활동, 서울, 북코리아.
- 전창환(2009),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와 금융자본의 재편”, 동향과 전망, 76, pp. 109-143.

- 최창열·함형범(2011),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환율변동과 수출가격”, 통상정보연구, 제13권 4호, pp. 227~247.
- 최문성(2012),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수출보험이 한국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 통상정보연구, 제14권 4호, pp. 295~313.
- Dymski, G., Li, W., Aldana, C., & Ahn, H. (2010), Ethnbanking in the USA: from antidiscrimination vehicles to transnational entities, *International Journal of Business and Globalization*, 4(2), 163-191.
- Gowan, P. (2008), Crisis in the Heartland, *New Left Review*, 55, Jan/Feb. 5-29.
- Jaffee, D., Stijn V. N., Richardson, M., White, L. & Wright, R. (2009), What to Do about the government Sponsored Enterprises?, in *Restoring Financial Stability: How to Repair a Failed System*, New York University Stern School of Business, Wiley Finance.
- Kim, E. H. & Yu, E. Y. (1997), *East to America: Korean American Life Stories*. New York: New Press.
- Konings, M. (2009), Rethinking Neoliberalism and the Subprime Crisis: Beyond the Re-regulation Agenda, *Competition and Change*, 13(2), 108-127.
- Li, W. (1999), Building Ethnoburbia; The Emergence and Manifestation of the Chinese Ethnoburb in Los Angeles San Gabriel Valley, *Journal of Asian American Studies*, 2(1), 1-28.
- Li, W., Zhou, Y., Dymski, G. & Chee, M. (2001), Banking on Social Capital in the Era of Globalization Chinese Ethnobanks in Los Angeles, *Environment and Planning*, 33(4), 1923-1948.
- Light, I. & Gold. S. J. (2000), *Ethnic Economies*,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Min, Pyong Gap (1996), *Caught in the Middle: Korean Communities in New York and Los Angeles*, Los Angeles,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Randall S. K. & Strahan, P. E. (2011), Financial Regulatory Reform: Challenges Ahead, *American Economic Review*, 101(3), 242-246
- Rasmus, J. (2009), Speculative Capital, Financial Crisis and Emerging Epic Recession, *Critique*, 37(1), 31-49
- Yu, E. Y. & Phillips, E. H. (1987), *Korean Women in Transition : At Home and Abroad*, Center for Korean-American and Korean Studies, California State University, Los Angeles.
- FDIC(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https://www.fdic.gov/bank/statistical/>
- US Census, <http://factfinder.census.gov/faces/nav/jsf/pages/index.xhtml>

ABSTRACT

Korean-American Economy and Ethnic Financial
Institute after Global Financial Crisis
: Focusing on California State

Chang, Sun Mi*

This study deals with a research on Korean American economy and Korean banks operated in California where a large percentage of Korean residents in the U.S. is concentrated. Using data published by U.S. Census and the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FDIC), quantitative analyses have been performed on the asset, employment, market share and other features of selected Korean American financial institutions. Also, each bank's status of financing and asset management are reviewed through the analysis of its balance sheets. The outcome of analysis on the status of Korean American bank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Korean American banks are shown to be growing to become major banks with equivalent scale as mainstream banks. Second, the recently improved fundamentals of Korean American banks are identified. Third, the operational performances of Korean American banks are verified to be similar to the average of Californian banks.

Key Words : Korean-American, Economy, Ethnic bank, Financial Crisis, California State

* Associate Professor, International Trade Dept., Wonkwang University.